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첫날 0.1% 예약

1순위 접종군 172만명인데...4만6574명만 예약 “2가백신 정보 계속 제공하면 예약 참여할 것”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 19 개량백신의 사전예약 첫 날 예약 참여율이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개량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홍보해 접종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총 4만6574명이 개량백신 사전예약에 참여했다. 예약 첫 날 접종 대상자(3966만4351명)의 0.1%만이 백신 접종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선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을 놓고 보면 대상자 1148만4586명만 가운데 4만6146명(0.4%)이 예약에 참여했다.

18~59세는 428명이 예약했다.

개량백신 1순위 접종군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가 172만7697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예약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근용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에 대해 “이제 막 예약이 시작됐고, 2가백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전예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예약이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접

종할 수 있다. 단, 기초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접종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우선적으로 60세 이상과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시설 입소자가 대상이다. 50대 이하 성인 기저질환자와 보건의료인, 군 장병 등은 2순위 권고 대상자다. 일반 성인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당일접종을 통해서만 맞을 수 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예방접종은 특히 중요하다”며 접종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의 중증 진행 위험은 미접종자에 비해 각각 95.0%, 68.6% 낮았다.

또 4차 접종을 받은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 대비 83.7%, 2차 접종군 대비 64.8%, 3차 접종군 대비

1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백신 도입으로 제기되는 기존 백신 폐기 우려에 대해서는 “1·2차 접종이 기존 백신을 통해 계속 이뤄지고 있고, 3·4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해외 공여 등 다른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유효 백신으로 인정되지 않아 접종자가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 입국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정부에서도 각국에서 스카이코비원이 유효 백신으로서의 인정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진도소방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26일~27일 금성초등학교, 고군면사무소 대상으로 방문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소방, 문화와 소통이 있는 날 “가을 속마음” 프로그램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직원들을 위한 문화와 소통이 있는 날 “가을 속마음” 프로그램을 28일 광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2022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 행사 개최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8일 완도수목원에서 2022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리버스 멘토링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세대 간의 조직문화 개선 등 원활한 소통과 정서적 공감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순천경찰,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28일 금당중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순천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해경,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환경정화 활동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23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해 청정 바다를 만들고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2차 감식...화물용 트럭 정밀 분석

감식단, 지하 바닥서 원인 불명 물 고임 확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사고 합동 감식단은 28일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주차장 내 화물용 1t 트럭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정밀 감식하기로 했다.

김항수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시작한 2차 화재 감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장은 “트럭은 국과수에 정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오후에는 소방 시설인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작동 여부, 물탱크 수압 게이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럭은 정밀감식을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겨졌다.

김 대장은 또 소방당국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측과 이견을 보이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 “바닥에 물이 일부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과수는 지하주차장 구도 확인을 위한 드론 촬영을 진행했다.

김재환기자



광화문광장 걷는 세종대왕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어가행차가 이동하고 있다. 이번 세종대왕 어가행차는 오는 10월 7일 청주에서 열리는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앞두고 진행됐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어가행차가 이동하고 있다. 이번 세종대왕 어가행차는 오는 10월 7일 청주에서 열리는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앞두고 진행됐다.

광주·전남 지난해 초·중·고 학업중단 2213명

광주 초등 330명·중등 139명·고등 636명...1105명

전남 초등 218명·중등 152명·고등 738명...1108명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2213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시 만안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학업중단 학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77명에서 지난해 4만2755명으로 1년 만에 33.5%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2020년 887명에서 지

난해 1105명으로 218명 늘었으며 고등학교 학업중단이 많았다.

초교생은 296명에서 330명 소폭 증가, 중학생은 144명에서 139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교생은 447명에서 63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이 2020년 948명에서 2021년 1108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초교생 220명에서 218명, 중학생 127명에서 152명, 고교생 601명에서 738명으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로 높았으며 중학교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고등학교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의원은 “많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 맞춤형 심리상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이슬기자

‘불명’ 화로용 에탄올 안전주의보...“위험 표기 없이 유통”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명’을 즐기기에 사용하는 화로용 에탄올 제품이 위험 표기 없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1ℓ 이하의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구매해 소방연구원에 분석 요청한 결과,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이었다.

에탄올 함량이 95%를 넘으면 섭씨 13.5도 이상 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해 78.0도부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므로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했을 때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관련 화재·위해 사고 건수는 23건에 이른다. 이 사고로 22명이 다치고 1억2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러나 이들 제품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면 운반용기에 품명·화학명·화합물명, 화기등급, 화기등급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의무 표시사항 준수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대상 업체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소방청은 또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지침’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 402곳에 전달했다. 추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